

# 2024 하계 해외문화체험(베트남) 결과 보고서

정치외교학과 배소희

## 1. 참가 활동 내용(사진 포함 가능)

저는 이번 24년도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하계 해외문화체험에 최종 선발되어 6/24~6/28일까지 진행되는 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서 모여 간단하게 일정을 확인한 후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느껴진 것은 후덥지근한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와는 확실히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의 우기 기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희가 처음 방문한 곳은 베트남의 하노이 국립대학교였습니다. 대학 캠퍼스라는 곳이 조성되어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건물들이 모여있는 것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도시의 대학교라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 <하노이 대학 전경과 망고주스>



캠퍼스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돌아보며 외국어 대학, 사범 대학 등을 구경하고 문득 베트남 대학생들의 방학과 학기 시즌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져 현지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하다는 답변을 듣고 흥미로웠습니다. 베트남 대학교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건물에 식당이 있어 망고주스를 구매해봤습니다.

### <성요셉 성당과 베트남 유명 콩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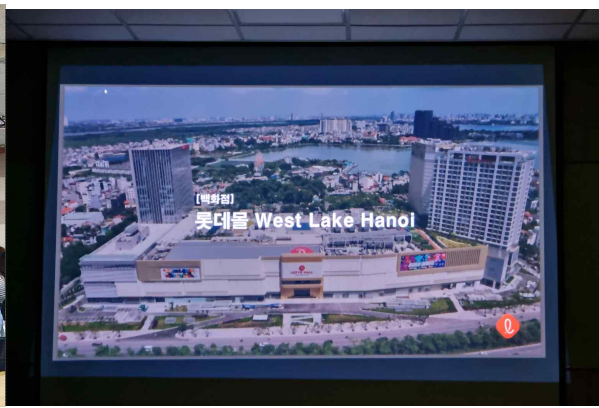


하노이 호안끼엠 거리를 돌아다니며 구시가지 거리를 돌아보고 성요셉 성당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지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돌아보며 교수님이 직접 구시가지의 문화나 역사도 설명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에는 콩카페라는 유명한 프렌차이즈가 있습니다. 이 카페는 신기하게도 베트남하면 떠오르는 사회주의 느낌의 채색과 인테리어, 근무자 역시 모자와 근무복에 베트남 국기가 새겨져 있어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시그니처인 코코넛 스무디 커피를 맛보고 함께 간 새로운 친구와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며 구시가지를 경험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과 예배 종소리도 듣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날은 아주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해외문화체험 신청 당시 연구 주제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KOTRA와 하노이 최대 쇼핑몰인 롯데몰에 방문해 우리 기업의 현황에 대해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선 KOTRA 베트남지부에

방문해 본부장님의 동남아 시장 중 베트남 기업의 중요성과 현황, 문화, KOTRA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점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동성이 적어 오히려 기업 진출에 용이하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KOTRA 방문에서 저는 전공 수업에서 배운 한국의 해외 투자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와 기업간 이익의 차이에 대해 질문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른 관점, 현직자의 실무적인 업무 시선에 대해 배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마트에 방문해 한국 기업의 상품과 베트남 현지 상품을 둘러보며 비교하고 한국에서 유명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베트남은 커피가 매우 유명한데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역시 많아 현지 문화를 참고하여 둘러보기 적절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제품과 화장품 등 K-POP 중심으로 한국 문화가 인기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롯데몰 베트남 점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유통업계에 대해 배우고 하나의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업무,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알려주셨고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취업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복합쇼핑센터의 역할을 하는 롯데몰이 되기까지 기업과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녁에 한인타운에 방문해 K-MART와 한인타운을 둘러보고 식사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먹는 삼겹살은 특별히 맛있었습니다.

### <하노이 KOTRA 본부와 롯데몰 탐방>



셋째날 일정은 팀별 자유연구탐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팀별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입니다. 자유연구가 끝난 이후 현지 시장인 롱비엔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동수언 시장이 가장 유명하지만 저희는 현지 재래시장인 롱비엔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현지 분위기와 식재료를 사고 파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식료품은 물론 대부분의 소비재를 온라인 마켓과 대형 마트를 통해 소비하는데 반해 베트남은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는 것을 보고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동할 때는 그랩을 이용해 이동했는데 한국은 오토바이 택시가 없지만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배달이나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롱비엔 시장은 근처 동수언 시장과 하노이 맥주거리, 구시가지 모두 가까워 하노이의 중심상권을 살펴보는 데 적절했다.

이후 팀원들과 현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가졌다. 베트남 대표음식인 쌀국수와 분짜를 주로 먹다가 새로운 식재료와 메뉴에 도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볶음국수와 다르게 베트남의 볶음국수는 대표 향신료인 고수를 사용하고, 면이 라면의 건면같은 형태로 걸쭉한 점성을 가지고 있어 식문화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동쑤언 시장과 식료품을 사고파는 모습>



마지막 날은 하노이 지역이 아닌 닌빈(Ninh ninh) 지역의 쟁안과 바이딘 사원, 향무어에 방문했습니다. 넷째날은 베트남의 절경과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화강암 지대인 것과 다르게 닌빈은 석회암 지대로 이뤄져있습니다. 보트투어를 통해 석회암 지대의 기암괴석과 석회암 동굴을 탐험했습니다. 한국의 풍경과는 다른 수많은 괴석의 풍경은 압도적이고 평생의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바이딘 사원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베트남 전역의 불교 순례자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천교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고사찰과 신축 사찰이 공존했습니다. 크기가 매우 커 사원 입장을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할 만큼 넓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모두 대승불교의 종파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불교사원과 석가모니상은 정갈하고 화려하지 않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불교는 전통신앙과 융합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화려한 불상을 가지고 있어 매우 특이했다. 유교문화를 공유함에도 나라 간 차이점을 종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향무어는 닌빈의 절경을 눈으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1200년대 트란 왕이 무희들의 춤을 보기위해 이 동굴에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역사적 호기심을 느끼며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약 500개 정도 되는 계단을 올라야만 볼 수 있는 절경은 계단을 오르기 매우 힘들었지만 그만큼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 <쟁안 보트체험과 향무어 전망대>



##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이번 하계해외문제탐험은 정말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방문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 해외 문화의 유서 깊은 양식과 문화를 배운 기회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고 의미있는 경험은 교수님의 연락으로 성사된 KOTRA 방문과 롯데몰 탐방, 그리고 닌빈 지역의 자연 문화유산 탐방이었습니다. KOTRA와 롯데몰의 경우 4학년인 저에게 해외취업에 대한 진로 고민과 전공 시간에 배운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평소 저의 궁금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과 현장 실무의 역량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해외취업 준비에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닌빈 지역의 자연 문화 탐방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웅장한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느 순간 여행을 가면 편한 곳, 건축물이나 인테리어가 이쁜 곳만 찾았는데 여행의 진정한 가치는 낯선 경험을 하고 도전을

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해외문화체험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베트남 시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있게 하고 문화적 차이와 이(異)문화 적응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학부 인턴쉽이 끝나면 해외 취업을 준비하거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채용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KOTRA에 관심이 생겨 무역 자격증과 영어 어학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KOTRA 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해외 일정이다 보니 기후, 날씨, 교통상황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지원과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아주대학교와 국제학부 교학팀 선생님, 한상곤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자유연구를 위해 국제학부 교학팀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승낙 해주셔서 자유탐구 및 문화 교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현지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많이 변경되어서 다 보지 못한 장소가 있거나,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화체험을 하게되어 가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더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문화체험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날 날씨가 매우 습하고 더웠는데 학우들이 땀을 많이 흘린 상태로 비행기에 타야해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내 일정을 조정하거나 사전 공지를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유익한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이번 하계해외문화체험은 정말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방문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 해외 문화의 유서 깊은 양식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국제학부는 국제통상학을 비롯한 중국, 일본 전문 수업이 많이 열리고 국제 무역은 어느 회사에서도 기본적인 지식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특히, 국제통상입문, 국제통상세미나, 한상곤 교수님의 무역영어, 현장 실무 수업은 이론적 지식과 현실에서 기업의 수출, 국내 성장을 위해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학우들이 취업과 진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꿈과 진로는 예기치 못한 경험을 통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경험을 이번 해외문화체험을 통해 느꼈습니다. 해외문화체험을 비롯한 해외문화 연구 등 학생이 연구를 기획하고 도전하는 경험은 흔치 않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더욱 많아져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용기를 얻길 응원하겠습니다.